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5개국 개인 삶의 만족과 사회갈등해소역량*

우 명 숙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 길 용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수로

조 병 희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유 명 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이 글은 2012년도에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5개국에서 실시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갈등과 사회의 갈등해소역량에 관한 개인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로 국가간 거시비교와 심리학적인 개인주의적 접근으로 탐구했던 기존 연구와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잠재적인 사회갈등과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이다.

총 5,23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갈등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를 가지며, 물질주의적이고 성장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한 바대로 사회갈등해소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인식수준에서는 소득수준, 경제적 위기의 경험, 신뢰, 탈물질주의 또는 복지지향의 가치관 등의 영향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국가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물론 유의성에 있어서 서로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주제어: 사회갈등, 양극화, 사회갈등해소역량, 삶의 만족도, 사회의 질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20).

** 주저자

*** 교신저자

I. 서 론

최근의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들은 개인의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들, 사회자본, 정치인식과 같은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국가의 일인당 GDP, 사회지출수준, 신뢰수준 등과 같은 국가수준의 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Bjørnskov et al., 2008; Böhnke, 2008; Helliwell, 2003, 2008; Howard and Gilbert, 2008).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이 개인의 성격이나 삶의 경험의 비교연구(Bailey et al., 2007)에 집중한 것과는 다르게,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되, 개인들의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의 속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잠재적인 사회갈등과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이다. 비교대상 국가의 제한으로, 국가수준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으나, Böhnke(2008)이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변수들과는 독자적으로 개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실증해낸, ‘사회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society)’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사회에 대한 인식은 거시 국가지표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개인들이 사회의 갈등 해소역량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것이며 ‘갈등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론적 전통의 사회학은 갈등은 편재하며 사회발전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본다(Collins, 1994). 그러나 사회제도를 통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Huntington, 1969; Rodrik, 1998). 갈등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회갈등은 여러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유

발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전사회학의 전통에서 보자면, Karl Marx는 경제적 불평등을, Max Weber는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사회적 위신 등의 불평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이 부각되어 왔다(김왕배, 2001).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학적 불평등론에 포괄되지는 않지만, Inglehart의 탈물질주의 명제는 세대간 갈등의 잠재적 원천을 제시해 주었다(Inglehart, 1990).

이 글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천들 중에서 사회적인 대립을 야기시키는 소득격차, 불신/배제, 세대갈등의 측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각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주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 사회의 갈등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들은 갈등사회에서 갈등을 당연시 여기고 산다기 보다는 보다 안정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염원하게 되며, 갈등을 인식하고 살지만, 이러한 갈등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는 인식은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사회의 역량이 갈등사회의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완화하고 이로써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글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글은 ‘좋은 사회’는 사회갈등으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회로 보고, 여러 차원의 사회적 역량 중에서 어떤 역량에 대한 개인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의 갈등해소 역량에 대한 논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 SQ)’의 분석틀(정진성 외, 2010; Yee and Chang, 2011)을 참고하여 한 사회의 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할 사회적 역량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정치 의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영역이라면, 복지국가적 역량만이 아닌 다른 사회적 역량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개인들이 사회의 복지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개인들은 갈등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여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5개국의 개인인식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독일은 유로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차이를 보여 한국이 서로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국가로 판단되어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한편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터키는 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뒤쳐져 있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한국과 다른 사회통합역량을 보여주는 국가로서 (이현주 외, 2012), 유럽국가들과는 또 다른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5개국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일반화시켜 논의해 볼 수 있고, 동시에 5개국에 제한하여 최근 경제위기와 극복, 그리고 정치사회적 환경과 변화를 잘 숙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보다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우선 연구대상 국가들의 배경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갈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의 역량이란 무엇인지를 기존의 여러 사회갈등, 사회통합,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규정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어 IV장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V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의 함의와 이 글의 한계를 논의한다.

II. 연구의 틀

1. 연구대상 국가들의 맥락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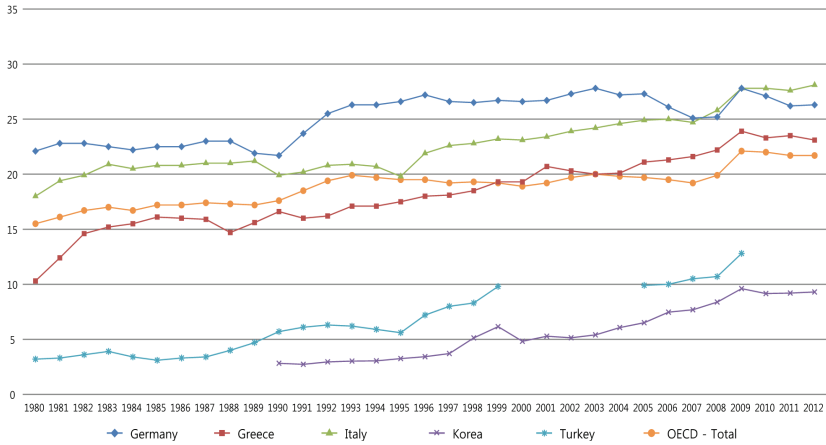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여파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남부유럽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혹독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실제로 2010년 그리스의 긴급 구제금융의 요청으로 시작된 남유

럽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는 전년도 대비 2008년 실질 GDP 성장률이 -0.2퍼센트로 내려간 이후 최근까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2년에는 -6.3퍼센트로 떨어졌으며, 이탈리아는 2009년 -5.5퍼센트까지 떨어진 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2.2퍼센트로 떨어졌다. 반면 독일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5.1퍼센트의 GDP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4.0퍼센트로 올라간 후 전반적인 성장세로 돌아섰다(OECD Stat.).

장덕진 외(2012)의 국제비교 연구는 이들 유로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 유로존 경제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공적 사회지출은 높은 편이었으나, 공적 기관 신뢰와 투명성이 낮았다. 반면 독일은 공적 사회지출이 높으면서, 동시에 공적 기관 신뢰와 투명성이 높았다(그림 1 참조). 이 유로존 세 국가들에 비해서 터키와 한국은 공적 사회지출이 낮으면서, 또한 기관 신뢰와 투명성이 높지 않았다.

한국은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터키와 어떻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공적 기관 신뢰와 투명성이 낮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사회지출은 낮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서 합의하는 바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면 높은 사회지출의 복지국가도 경제위기 시에 사회적 보호막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독일은 사회적 합의의 정치와 노사합의의 노동시장개혁으로 높은 사회지출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터키는 한국보다 일인당 GDP 수준이 낮고, 사회지출은 한국과 유사하게 OECD 국가에서 가장 낮다. 터키는 또한 과거 군사정권의 집권,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 등으로 유럽국가들이나 한국에 비해서도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이슬람을 법에 따라 빛이 없는 사람은 소득의 5%를 기부하는 기부문화가 발달하여 시민사회가 자선사업을 통해 사회위기를 완충해 주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현주 외, 2012).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주: 터키는 2000~2004년 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그림 1. 공적 사회지출, GDP 대비 비중(%): 1980~2012

직 간의 격차는 커졌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OECD 27개 회원국가들 중에서 임금불평등은 세 번째로 높으며(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이 가장 많다(김유선, 2012: 38-39). 사회보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는 커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정규직 가입률의 절반 남짓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1). 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또한 세대, 이념, 지역 등의 사회갈등의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5개 국가들은 사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대상 국가들에 대한 배경 지식은 개인인식 수준에서 나타날 변이들(variations)을 이해하는 데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개인들이 보여줄 인식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통합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한 ‘준거틀(reference framework)’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2005). 즉 사회통합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Huntington이 말한 한 나라의 “갈등수용능력(carrying capacity)”(1968), Rodrik(1998)이 강조한 경제성장을 위한 “갈등 해소능력”, 그리고 Acemoglu et al.(2006)가 중요하다고 본 “사회갈등을 풀어갈 정치권력”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얻어지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통합에 대한 갈등론적이고 제도주의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재열(2011)은 이러한 근대화 과정과 사회통합의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사회통합이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제도역량”의 결과로 보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갈등의 정도가 낮고, 갈등해소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갈등의 수준뿐만 아니라 갈등해소 능력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도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나, 이재열(2011: 57)은 분자에 불평등과 불신을, 분모에 복지지출,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넣어보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이러한 도식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사회통합 공식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잠재적 갈등원과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 = - 갈등

$$\text{사회통합(- 갈등)} = \frac{\text{잠재적 갈등원}}{\text{제도적 갈등 해소 능력}} = \frac{\text{불평등} + \text{불신}}{\text{복지지출} + \text{민주주의} + \text{거버넌스}}$$

그림 2. 사회통합 개념의 도식화(이재열, 2011)

$$\text{사회통합(-갈등)} = \frac{\text{사회갈등의 잠재적 원천(경제 + 관계 + 가치 양극화)}}{\text{사회갈등해소의 역량(정치역량 + 사회역량 + 복지역량)}$$

그림 3. 주요 개념들의 관계 체계

을 연구하기 위해 이 사회통합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갈등의 원천에 대한 여러 기존 불평등 논의들과, 사회의 역량에 대한 사회의 질 이론(Social Quality Theory)을 검토하여, 이 사회통합 개념 체계로 포괄되어 실증연구에 활용될 주요한 개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의 사회통합 개념의 도식에 이 글은 그림 3에서의 개념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관계의 체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갈등의 잠재적 원천의 세 차원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사회갈등의 잠재적 원천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수준에서의 갈등을 개인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층위는 기존의 사회불평등이나 사회적 배제의 논의들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우리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개인 삶과 의식에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었다.¹

(1) 경제적 양극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en은 ‘가난’을 개인의 역량의 결핍(capability deprivation)으로 보고자 했다(Sen, 1999). 이것은 가난이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난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요(needs)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요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섭취

1. 이하의 사회갈등의 세 가지 주요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양극화, 관계의 양극화, 가치의 양극화가 과연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며 포괄적(exhaustive)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여러 불평등론이나 사회배제에 대한 논의에서 이 범주들이 구분되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다른 범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 세 가지 범주가 모든 사회적 갈등의 원천을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경제, 사회, 문화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며, 개인의 삶과 의식도 이 세 차원에서 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중요한 차원은 포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개념들은 실증연구를 위해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구성된 것임도 미리 밝혀둔다.

하는 생리적인 요구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Sen에 의하면 기본적인 필요는 이러한 생리적 요구뿐만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그 무엇”, 즉 참여(participation), 역능(empowerment), 공동체 생활(community life)를 포함한다(Rai, 2002: 63). 따라서 가난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과 참여, 역능의 결핍을 의미한다. 서구 국가들에 대한 Wilkinson and Pickett (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부의 크기 그 자체보다는 소득불평등이 한 사회의 건강과 사회문제, 아동의 복지, 신뢰, 정신건강, 약물사용 등, 삶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 부정적 관계를 가진다. 이 말은 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수록, 개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과 복지, 그리고 사회참여와 자기결정 등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개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관계의 양극화

무엇보다 신뢰는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관계수준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자본의 핵심역량이다(Putnam, 1993). 신뢰를, 이미 알고 있는 개인들 사이에 가용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는 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타인들을 적대적으로 보거나, 경쟁자 또는 낯선이로 보지 않고 동류로서 바라보는 경향성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후자로 신뢰를 보자면, 이때 신뢰는 사회연대 의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주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Jeon, 2012: 125-126). 따라서 이러한 신뢰가 결여된다면 개인 간 물질적·비물질적 교환관계에서 협력이 어렵고, 이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과잉경쟁과 이기심, 오해와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이재열, 2010).

한편 관용은 신뢰와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신뢰가 일반적인 개인들에 대한 동류의식이라고 한다면 관용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개인 또는 집단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된다(장용석 외, 2012: 298). 주변화된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개인의 태도는 자신과 이들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는가, 이들을 사회통

합의 주요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관용은 개인들이 보다 사회통합적인 삶을 지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인의 삶의 질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가치의 양극화

성장이냐 복지냐 라는 가치논쟁은 현대사회의 시장지배력의 확장의 맥락에 놓여 있다. Polanyi가 19세기 유럽의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자기조정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이라는 극단적인 인위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파했듯이, 근대 복지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는 시장질서의 지배가 토지와 노동력까지 상품화시킴으로써 사회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판단에서 있다(칼 폴라니, 2011). 그러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들은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사회정치세력들의 투쟁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갖는다(Esping-Andersen, 1990).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서구복지국가의 성장과 재편의 과정에서 사실상 끊임없이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이 수행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들의 복지태도가 여러 층위의 변수들(계급, 세대, 성, 교육, 가치관, 신뢰 등)에 의해서 균열되어 있음을 보여왔다(김신영, 2010; Blekesaune and Quadagno, 2003; Kaltenthaler and Ceccoli, 2008; Svallfors, 2004, 2007). 성장지향적인가 복지지향적인가라는 개인의 태도는 개인들이 기대하는 삶의 기회들, 그래서 삶의 만족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물질주의나 물질주의나 라는 가치대립은 성장이나 복지냐 라는 가치지향성의 대립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가치대립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성장이나 복지냐 라는 차원의 가치가 물질주의적 패러다임 내에서의 대립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탈물질주의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가치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Inglehart(2008)의 탈물질주의의 명제는 궁극적으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년시기의 삶의 경험의 차이가 물질주의적 지향과 탈물질주의 지향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사회에서 이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궁핍함을 경험한 세대는 경제적 안정과 질서확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에 비해서 서

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황금기 시기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회질서와 물질적 번영이 아닌 표현의 자유, 다양성의 존중, 정치적 의사결정의 참여 등의 개인가치에 근거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박재홍·강수택, 2012: 70). 개인차원에서 이러한 가치지향성의 차이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복지지향적 가치관과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그 자체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회통합적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은 타인과 사회공동체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 그러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이들이 다른 가치관과 충돌을 경험하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

3) 사회갈등해소역량

사회갈등해소역량은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다차원적인 사회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사회갈등이 사회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개인들은 덜 불안하며 더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의 질 이론(Social Quality Theory)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포용성, 사회역능성, 사회응집성의 네 가지 부문으로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정진성 외, 2010; Yee and Chang, 2011),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이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의 역량을 이 사회의 질 이론으로부터 개념화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사회포용성은 공적 제도에 해당되고,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능성은 비공식적 생활세계에 해당된다(Yee and Chang, 2011: 161).

이러한 사회의 질 이론을 참고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의 역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사회갈등해소역량을 우선 공식적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부문은 양극화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주로 사회의 질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영역이며, 실업이나 빈곤, 혹은 다양한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역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²

한편 비공식적 사회갈등해소역량은 사회의 질의 사회적 역능성과 사회응집성의 영역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생활세계의 영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하나는 사회적 역능성을 보여주는 ‘정치역량’이다. 이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경로로 그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응집성을 보여주는 ‘사회역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이 다양한 개인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공개되고, 사회제도의 투명성이 높으며,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종합하는 공동체의 역량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크게 세 차원에서의 사회갈등해소역량을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갈등해소역량의 각 층위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개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들의 갈등상황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자신들의 삶의 기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신들의 삶의 기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며, 따라서 그들의 삶

2. 공식적인 사회갈등해소역량에 사회의 질의 사회포용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국가간 비교에는 적합한 개념이나 개인인식 차원에서의 개념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갈등해소역량 개념구성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사회포용성은 사회의 기회구조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정진성 외, 2010: 7).

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글은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2012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의 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수행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의 선택과 전반적 구성은 2009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개발한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설문 도구(Standard Questionnaire for Social Quality)를 원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의 다차원적이고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갈등의 해소역량에 관한 인식의 측정을 위하여 사회의 질의 4분면의 영역별,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역량(welfare & safety net), 회복탄력성 증대 역량(human capital investment and resilience enhancement), 정치적 역량화(political empowerment), 사회적 역량화(social empowerment)의 영역별로 지표를 재구성하고 복지정책, 정치참여, 인권 등의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본 연구를 위한 통합 설문지를 재개발하는데 참여하였다.³ 특히 이 자료 수집은 한국과 터키를 유럽 국가들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모집단은 그 국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한국은 만 19세)의 성인남녀이며, 각 국가별로 참정권이 부여되는 나이를 성인의 기

3. 조사내용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한국어 설문지를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영어로 작성된 통합 설문지를 해당 국가별 언어로 번역한 후 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검토하는 과정(back-translation)을 거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준으로 삼았다. 표본의 규모는 주어진 예산과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도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확률표집에 의한 표본 추출일 때 95% 신뢰수준에 $\pm 3\%$ 정도의 표준오차를 얻을 수 있는 크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별로 1,000개의 사례를 목표로 하였으며, 본 조사의 최종 응답자 수는 한국 1,000명, 독일 1,200명, 이탈리아 1,001명, 그리스 1,013명, 터키 1,018명으로 총 5,232명이었다.⁴ 표본의 추출은 제한된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여 비확률표집방법인 할당표집으로 추출하였다. 본조사의 경우 무응답을 줄이고 응답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된 현지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면대면(face to face)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개국의 총 5,232명의 조사 결과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결측치가 있는 일부 문항의 경우 분석 시 결측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 변수의 구성 및 조작화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어느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삶이 주는 느낌을 총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변수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응답자의 자기 기입 방식으로 1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분석에서도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만족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한다.

2) 독립변수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들은 개인의 인구

4. 독일의 경우 동서독 지역간 분배 및 비교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표집하였다.

학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들, 사회자본, 정치인식과 같은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국가의 일인당 GDP, GDP 대비 사회지출수준, 신뢰수준 등과 같은 국가수준의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Bjørnskov et al., 2008; Böhnke, 2008; Helliwell, 2003; 2006, Howard and Gilbert, 2008). 흥미롭게 Böhnke (2008)는 국가 또는 사회수준의 집합적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society)’을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국가수준의 집합적 지표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제시한다. 이는 집합적 지표들로 측정되는 객관적인 사회의 질과 별도로 개인들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들에서 다뤘던 개인수준의 변수들에 초점을 맞춰, 한국, 터키, 그리고 유럽 3개 국가들 간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개인수준의 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기존 삶의 만족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변수들 중 갈등 및 통합 변수들로 재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하고, 또한 ‘사회에 대한 인식’ 변수들을 구성한다. 따라서 우선 사회갈등의 관점에서 개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측정하고, 사회갈등해소역량이라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1) 사회갈등 인식

개인들이 인식하는 사회갈등은 경제적 자원의 양극화, 관계의 양극화, 가치의 양극화라는 세 가지 갈등의 잠재적 원천에서 주로 비롯된다고 보고, 이 각각을 ‘경제적 양극화’, ‘관계의 양극화’, ‘가치의 양극화’로 개념화하고, 각 개념은 2가지 이상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양극화의 경우 4분위수로 나타낸 월 평균 가구소득과 경제적 위기 경험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분위에 속하는 개인이 월 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높도록 측정하였다.

경제적 위기의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은 “귀하 가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다. 이 문항에서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식비, 세금 및 공공요금,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내지 못한 경험을 각각 묻고, 각 항목의 경험 여부를 0과 1의 이분 변수로 코딩하여 전체 6항목의 응답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0.779).

관계의 양극화의 경우 GSS(General Social Survey)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 여부와 WVS(World Values Survey)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부의 신뢰 여부로 측정하였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 설문 문항은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믿을 수 있다’와 ‘조심해야 한다’의 이분 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설문 문항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4: 매우 신뢰 한다)로 측정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한 각각의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지표로 활용하였다(cronbach's alpha=0.871).

관용도의 경우 WVS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빈곤층, 장애인, 동성애자, 정신질환자, 전과자 등의 특정 집단에 대한 문제 인식 여부를 이분 변수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귀하는 아래 사람들이 귀하의 이웃으로 산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문제 인식 여부에 관한 측정 항목을 요인 분석하여 산출된 요인별 집단(요인 1: 외국인 노동자, 빈곤층, 장애인/요인 2: 동성애자, 정신질환자, 전과자)의 합산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으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2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요인 1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cronbach's alpha=0.767).

가치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WVS에서 사용되고 있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관한 문항과 복지 지향 가치관에 관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물질주의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이루어야 할 국가의 과제로 ‘국방강화, 경제성장, 국가질서유지, 물가상승억제’를 선택한 경우이고, 탈물질주의의 경우 ‘사회참여증대, 환경보호, 국민참여확대, 언론자유확대’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질-탈물질주의의 가치가 혼재하는 경우는 혼합주의적 가치관에 해

당한다. 복지지향성 변수의 경우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와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를 줄여야 한다”의 상반된 가치에 대한 선택을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2)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

개인이 인식하는 잠재적 갈등 소지에 관한 완충요인으로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을 정치역량, 사회역량, 복지역량의 세 하위 범주를 통해 개념화 및 지표화시켜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사회갈등해소역량의 세 차원 모두 개인의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정치역량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정치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WVS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1: 전혀 관심이 없다-4: 매우 관심이 있다)로 측정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이다. 정치활동 수준의 경우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사람과 이야기하기’,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또는 민원 접수하기’, ‘서명운동,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로 분류된 각각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활동 수준을 5점 척도(1: 전혀 안 한다-5: 거의 매일)를 통해 측정하였다. 정치역량은 두 변수를 각각 표준화 시킨 후 합산하여 지표로 활용하였다(cronbach's alpha=0.712).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및 활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회역량은 5점 척도로 측정된 투명성, 개방성, 사회참여(봉사 및 기부참여) 경험의 변수를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하여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0.544).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투명성은 복지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의미하며 5점 척도(1: 매우 투명하지 않게 사용-5: 매우 투명하게 사용) 통해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귀하는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복지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개방성은 사회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5점 척도(1: 매우 반대-5: 매우 동의)로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의료, 과학, 경제, 법률 등 전문 분야의

정보 공개가 잘 되어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다. 사회참여는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단체나 기관의 기부여부를 5점 척도(1: 전혀 안 했다 -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를 통해 측정하였다.

세 번째로 복지역량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평가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로, 복지제도효율성과 증세의향유무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복지제도효율성(“귀하는 한국에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는 5점 척도(1: 매우 비효율적으로 제공됨 - 5: 매우 효율적으로 제공됨)를 통해 측정하였고, 증세의향유무(“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귀하가 내는 세금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는 10점 척도(1: 더 낼 생각이 전혀 없다 - 10: 많더라도 더 낼 것이다)를 통해 측정하였다. 복지제도효율성과 증세의향유무의 관측값은 표준화시킨 후 합산하여 복지역량 점수를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 0.584).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의 구성과 측정방법을 <표 1>에 정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인식 및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적인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범주형 설명변수를 가변수화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범주	개념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	10점 척도		
설명 변수	사회갈등 인식	경제적 양극화	월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4분위수	
			경제적 위기경험	필수적 생활비용(식비, 세금 및 공공요금,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이 없었던 경험	있다/없다(합산)	
		관계의 양극화	일반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불신	
			정부신뢰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신뢰	4점척도 (합산)	
			관용도	특정 집단(외국인 노동자, 빈곤층, 장애인)과 이웃으로 살게 될 경우의 수용 여부	문제가 된다/문제가 되지 않는다(합산)	
		가치의 양극화	탈물질주의 가치관	향후 중요한 국가 목표에 대한 인식 ① 물질주의적 가치관: 국방강화, 경제성장, 국가질서유지, 물가상승 억제 ②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사회참여증대, 환경보호, 국민참여확대, 언론자유확대 ③ 혼합주의적 가치관: 상기 목표들의 혼재	우선순위 목표(1순위, 2순위) 선택 항목에 따라 물질주의, 혼합주의, 탈물질주의로 재분류	
	복지지향 가치관		복지확대와 경제성장 중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	경제성장/복지확대		
	사회갈등 해소 역량 인식	정치 역량	정치 역량	정치 관심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	4점척도 (표준화)
				정치참여 경험	정치 활동 참여 수준(토론, SNS 활용, 정부 및 언론에 제안 또는 민원 접수, 서명 운동·시위·집회 등에 참여)	4점척도 (표준화)
		사회 역량	사회 역량	투명성	복지예산의 집행 투명성	5점척도 (표준화)
				개방성	사회적 개방성(외국인 생활 편이성, 전문적 지식 및 정보 공개, 의사표현의 자유)	5점척도 (표준화)
				사회 참여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기부경험	5점척도 (표준화)
복지 역량		복지 역량	복지제도 효율성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제공 여부	5점척도 (표준화)	
	증세의향 유무		복지를 위한 증세 부담 여부	10점척도 (표준화)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조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소득수준의 경우 4분위수로 나타냈으며, 월 가구소득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경우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 점수(1점~10점)의 국가별 분포는 독일, 이탈리아, 한국, 터키, 그리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간 삶의 만족도의 점수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국가별로 나타나는 사회갈등 인식에 관한 하위 영역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이 중에서 경제적 자원의 갈등 경험을 나타내는 경제적 위기경험 지표

<표 2> 조사참여자의 국가별 사회인구학적 분포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N	%	N	%	N	%	N	%	N	%
N		1000	100	1200	100	1001	100	1013	100	1018	100
성별	남자	497	49.7	612	51.0	475	47.5	498	49.2	527	51.8
	여자	503	50.3	588	49.0	526	52.5	515	50.8	491	48.2
연령	20대	191	19.1	171	14.3	128	12.8	227	22.4	325	31.9
	30대	211	21.1	130	10.8	155	15.5	187	18.5	252	24.8
	40대	226	22.6	199	16.6	214	21.4	193	19.1	200	19.6
	50대	193	19.3	176	14.7	195	19.5	165	16.3	188	18.5
	60대 이상	179	17.9	524	43.7	309	30.9	241	23.8	53	5.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1	18.1	354	29.5	584	58.3	347	34.3	454	44.6
	고졸 이하	386	38.6	695	57.9	282	28.2	366	36.1	391	38.4
	대재 이상	433	43.3	140	11.7	134	13.4	300	29.6	168	16.5
	무응답	0	0	11	0.9	1	0.1	0	0	5	0.5
소득 수준	1분위(낮음)	256	25.6	293	24.4	178	17.8	183	18.1	331	32.5
	2분위	200	20.0	305	25.4	162	16.2	113	11.2	278	27.3
	3분위	242	24.2	289	24.1	210	21.0	96	9.5	154	15.1
	4분위(높음)	262	26.2	193	16.1	159	15.9	132	13.0	190	18.7
	무응답	40	4.0	120	10.0	292	29.2	489	48.3	45	4.4
삶의 만족도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6.26	1.75	6.52	1.54	6.35	1.84	5.56	2.12	5.95	2.32

〈표 3〉 국가별 사회갈등 인식 수준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N (%)	Mean (SD)	N (%)	Mean (SD)	N (%)	Mean (SD)	N (%)	Mean (SD)	N (%)	Mean (SD)
경제적 위기경험			0.33 (0.86)		0.11 (0.43)		0.74 (1.35)		1.43 (1.51)		0.75 (1.49)
일반 신뢰	신뢰	212 (21.2)		522 (43.4)		171 (17.1)		188 (18.5)		244 (24.0)	
	불신	754 (75.4)		627 (52.3)		809 (80.8)		815 (80.5)		769 (75.5)	
	무응답	34 (3.4)		51 (4.3)		21 (2.1)		10 (1.0)		5 (0.5)	
소계		1000 (100)		1200 (100)		1001 (100)		1013 (100)		1018 (100)	
정부신뢰			3.86 (1.30)		5.30 (1.51)		3.22 (1.29)		2.96 (1.42)		4.73 (1.73)
관용도			5.48 (0.80)		5.76 (0.56)		4.04 (1.08)		5.32 (0.90)		4.35 (1.30)
탈물질주의	물질주의	451 (45.1)		176 (14.7)		349 (34.9)		263 (26.0)		150 (14.7)	
	혼합형	425 (42.5)		401 (33.4)		418 (41.8)		530 (52.3)		511 (50.2)	
	탈물질주의	124 (12.4)		623 (51.9)		234 (23.4)		220 (21.7)		357 (35.1)	
	소계	1000 (100)		1200 (100)		1001 (100)		1013 (100)		1018 (100)	
복지 지향	경제성장	485 (48.5)		442 (36.8)		645 (64.4)		575 (56.8)		296 (29.1)	
	복지지향	515 (51.5)		639 (53.3)		356 (35.6)		411 (41.6)		722 (70.9)	
	무응답	0 (0)		119 (9.9)		0 (0)		27 (2.6)		0 (0)	
	소계	1000 (100)		1200 (100)		1001 (100)		1013 (100)		1018 (100)	

의 경우 그리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43), 이탈리아(0.74)와 터키(0.75)가 비슷하였고, 한국(0.33), 독일(0.11)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일반신뢰 수준, 정부신뢰 수준, 관용도, 탈물질주의의 비율이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가별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 수준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합계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복지역량	0.41	0.17	0.51	0.16	0.37	0.18	0.28	0.18	0.48	0.17	0.41	0.19
정치역량	0.26	0.17	0.31	0.17	0.25	0.21	0.24	0.17	0.28	0.22	0.27	0.19
사회역량	0.37	0.14	0.46	0.12	0.44	0.15	0.38	0.12	0.47	0.18	0.43	0.15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의 하위 범주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z점수로 표준화하여 합산한 각 역량 인식별 하위 영역의 지표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하여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독일은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의 모든 하위영역별 지표 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회역량 인식 수준에서는 5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갈등해소역량에 대한 인식의 상호관계와 이러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표 5〉 참조) 및 다중회귀분석(〈표 6〉, 〈표 7〉 참조)을 수행하였다. 우선 상관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개인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갈등해소역량에 대한 인식 및 삶의 만족도 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은 경제적 위기경험과 부적관계로, 일반신뢰 및 정부신뢰 수준과는 정적관계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경제적 양극화 인식(가구소득과 경제적 위기경험), 관계의 양극화 인식(일반신뢰와 정부신뢰), 가치의 양극화 인식(탈물질주의 가치관, 복지지향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는 5개국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 및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1												
2. 연령	.031*	1											
3. 교육수준	-.051**	-.176**	1										
4. 가구소득	-.028*	-.132**	.207**	1									
5. 경제적 위기 경험	0.02	-.053**	-.067**	-.159**	1								
6. 일반신뢰 (신뢰→불신)	.036**	0.005	0	0.004	.069**	1							
7. 정부신뢰 (불신→신뢰)	0.006	.045**	-0.021	0.003	-.192**	-.228**	1						
8. 관용도	-.035*	.044**	.148**	-0.03	-.113**	-.142**	.088**	1					
9. 탈물질주의 가치관	-0.01	-.048**	.029*	0.011	-.038**	-.103**	.047**	.066**	1				
10. 복지지향 가치관	0.007	-.061**	-.036**	-.106**	.035**	-.057**	.066**	0.009	.153**	1			
11. 복지역량	-.044**	-.033*	.029*	.108**	-.217**	-.160**	.357**	.074**	.154**	.122**	1		
12. 정치역량	-.169**	-.164**	.148**	.139**	0.015	-.128**	.131**	.034*	.134**	0.018	.238**	1	
13. 사회역량	0	.037*	-0.013	0.027	-.080**	-.135**	.301**	-.031*	.087**	-0.02	.302**	.278**	1
14. 삶의 만족도	0.015	-0.015	.065**	.189**	-.310**	-.080**	.179**	0.021	-.034*	-.071**	.210**	.045**	.151**

*p<0.5, **p<0.05, ***p<0.001

모형 I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국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의 사회갈등 인식의 하위영역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저학력(중졸 이하)일 경우, 월가구소득이 적을 경우, 경제적 위기경험이 많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탈물질주의적 가치보다는 물질주의적 가치 혹은 혼합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복지의 확대를 지향하는 사람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높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역량,

〈표 6〉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변수		Model I		Model II		
		B	SE	B	SE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004	.062	.003	.063	
	연령 (20대)	.134	.103	.166	.104	
	(30대)	.054	.102	.087	.102	
	(40대)	.052	.098	.072	.097	
	(50대)	-.005	.101	.023	.101	
	교육수준 (중졸)	-.192*	.093	-.182 [†]	.093	
	(고졸)	-.007	.085	-.014	.084	
사회 갈등 인식	경제적 양극화	월가구소득 (1분위)	-.575***	.096	-.527***	.096
		(2분위)	-.558***	.092	-.530***	.092
		(3분위)	-.251**	.092	-.222*	.092
		경제적 위기경험	-.446***	.029	-.432***	.029
	관계의 양극화	일반신뢰 (신뢰)	.141 [†]	.073	.114	.073
		정부신뢰	.128***	.022	.100***	.022
		관용도	-.098**	.033	-.105**	.033
	가치의 양극화	탈물질주의 (물질주의)	.406***	.092	.419***	.092
		(혼합주의)	.245**	.075	.245***	.075
	복지지향 (경제성장)	.157*	.065	.165*	.065	
사회갈등 해소역량 인식	복지역량			.079***	.017	
	정치역량			-.017 [†]	.010	
	사회역량			.036**	.010	
국가	한국	.184 [†]	.110	.313**	.112	
	독일	.397***	.110	.441***	.110	
	이탈리아	.592***	.116	.666***	.116	
	그리스	.311*	.127	.488***	.130	
상수		6.204	.231	6.212	.230	
F		27.552***		26.123***		
Adjusted-R ²		0.143		0.153		

[†]<0.1, *p<0.5, **p<0.05, ***p<0.001

사회역량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잠재적 갈등소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갈등해소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분석을 국가별로 수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 이탈리아를 비교해 보면,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갈등에 대한 인

〈표 7〉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국가별 분석

변수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B	B	B	B	B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	-.541***	.270**	.089	-.091	.144	
	연령 (20대)	-.519*	.279 [†]	.431	-.060	-.385	
	(30대)	-.430 [†]	.059	.408	-.239	-.728 [†]	
	(40대)	-.594*	-.023	.272	-.055	-.369	
	(50대)	-.561***	-.183	.202	-.241	-.289	
	교육수준 (중졸)	-.530*	-.279	-.063	.238	-.406	
	(고졸)	.030	-.191	-.316	.263	.271	
사회 갈등 인식	경제적 양극화	월가구소득 (1분위)	-.410*	-.984***	-.653*	-.768**	.035
		(2분위)	-.138	-.871***	-.649**	-.682**	.014
		(3분위)	-.187	-.371*	-.412 [†]	-.724**	.289
		경제적 위기경험	-.450***	-.278 [†]	-.333***	-.319***	-.457***
	관계의 양극화	일반신뢰(신뢰)	.272 [†]	.198 [†]	.103	.490*	-.451*
		정부신뢰	.047	.038	-.019	.151*	.083 [†]
		관용도	.047	.219*	-.177*	.344**	-.298***
	가치의 양극화	탈물질주의 (물질주의)	-.112	.546**	.437*	.302	.796**
		(혼합주의)	-.139	.409***	.276	.008	.419*
	복지지향 (경제성장)	.336**	.133	.224	.623***	-.236	
사회갈등 해소역량 인식	복지역량	.072*	-.020	.032	.175**	.120**	
	정치역량	.054*	.003	-.047*	.049	-.072**	
	사회역량	.055*	.011	.135***	.078*	-.007	
상수		6.923***	5.410***	7.327***	4.156***	7.313***	
F		6.767***	6.271***	7.131***	11.575***	9.394***	
Adjusted-R ²		0.128	0.107	0.194	0.328	0.190	

[†]<0.1, *p<0.5, **p<0.05, ***p<0.001

식 요인과 사회갈등해소역량 요인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을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수록, 복지의 확대보다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가 클수록, 동시에 복지, 정치, 사회역량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별력 있는 변수가 아니었으며,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영향

요인들의 방향과 유의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스에서는 신뢰와 관용도가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고 있었다. 또한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터키는 한국과 유사하게 소득별 차이보다는 특히 경제적 위기경험이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낮추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5개 국가를 통합한 자료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극화의 범주별 분석 결과, 경제적 양극화는 가구소득의 차이와 경제위기 경험 여부가, 관계의 양극화에서는 신뢰와 불신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관계의 양극화를 구성하는 다른 변수인 관용도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치 양극화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복지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탈물질주의 가치관이나 성장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정리한다면, 5개국 개인인식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사회갈등의 잠재적 원천인 경제자원의 양극화, 관계의 양극화, 가치의 양극화의 세 가지 층위에서 개인들이 서 있는 서로 다른 위치가 서로 다른 수준의 삶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사회갈등해소역량의 구성요소로 가정한 복지역량과 사회역량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사회’의 요소들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함의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여러 이론적 근거와 다른 실증연구를 참조하여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정교한 논의는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 연구는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갈등해소역량에 대한 신

뢰가 국가에 따라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국을 중심으로 다른 네 나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함의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가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아직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함의는 전체 연구과정을 통해 국가 간 차이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싶은 부분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첫째, 비교의 대상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와 달리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통제변수로 고려한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령의 경우 한국과 다른 네 나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예컨대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독일 같은 국가와 달리 한국은 60대의 고령층에 비해 50대와 40대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보다 젊은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보면 독일은 남성의 삶의 만족감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한국은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의 개인들이 유의하게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 연구의 주요 갈등의 잠재적 원천으로서 경제적 양극화에서도 독특한 패턴이 발견된다. 경제적 위기경험은 5개국 모두에서 개인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으나 한국은 터키와 유사하게 그 하락폭이 뚜렷하게 컸다. 한편 가구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경우 소득 상위계층인 4분위에 속하는 개인들에 비해 그 아래에 속하는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반면, 경제적 위기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최하층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크게 떨어졌다. 그리스의 경우도 독일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터키는 소득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를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한다면, 한국은 경제적 위기의 경험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하층에 속하는 개인들만이 삶의 만족도가 유

의하게 낮아졌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이 저임금층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사실(김유선, 2012)을 고려해 보건대, 최하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신뢰 변수가 통합자료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으나, 국가별 자료에서는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립으로서의 관계의 양극화가 삶의 만족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 신뢰와 관용도가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계의 문제가 그리스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리스와 다른 국가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별 신뢰분포의 양상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보완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가치의 갈등 차원에서 보면, 국가별 자료 분석에서 탈물질주의 가치와 복지지향 가치는 서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 즉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가치 대립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성장과 복지의 가치 대립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구분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둘 중 어느 한쪽의 가치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한국과 그리스는 성장과 복지, 나머지 국가들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가치 차이의 영향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대립되는 가치의 사회적 중요성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통합자료에서는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의 세 가지 요소들 중 정치역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자료 분석에서는 국가별로 유의한 변수들이 다르다. 독일에서는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어느 정도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기존 유럽국가 비교연구에 따르면(Böhneke, 2008)에 따르면, 한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개인 삶의 만족도에 *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거꾸로 말하면, 사회의 결핍요인이 있을 때(개인 차원의 결핍과 별도로),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독일 외 국가들은 독일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복지역량은 한국, 그리스와 터키에서, 사회역량은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정치역량은 한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갈등해소역량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갖는 함의들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사회에서 개인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의 특정 갈등해소능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에 대해 더 논의해 보자면, 다른 사회에 비해서 특히 정치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정치역량 부분이 한국의 개인의 삶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Böhnke(2008)의 논의와 연결해 보면, 정치적으로 한국사회가 갈등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단면자료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변수들 사이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기존의 사회갈등과 통합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연관된 실증분석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다 정교한 이론틀을 개발하고, 국가별 개인인식 차이의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가지 방법론적 대안으로 경로모형의 구축이나 시계열 연구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대한 국가별 거시지표 분석을 추가하고 국가별 질적 연구를 보완한다면, 한국이 포함된 삶의 만족도 국가비교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권 1호 pp. 87-105.
- 김왕배. 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유선. 2012. “OECD 국가 임금비교.”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II: 해의 사례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29-48.
- 박재홍·강수택.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집 4호 pp. 69-95.
- 이재열. 2010. 「무너진 신뢰, 지체된 투명성」. 정진성 외. 『사회의 질 연구(I)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외환위기 10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 13-32.
- _____. 2011. 「사회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 능력」. 김광억 외.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현주·강신욱·최슬기·Kadir Ayhan·박형준. 2012.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터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덕진 외. 2012. “지중해 연안 국가와 한국의 사회의 질 국제비교 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한국사회학회·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장용석·조문석·정장훈·정명은. 2012.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집 5호 pp. 289-322.
- 정진성 외. 2010. 『사회의 질 연구(III): 사회의 질 동향 200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칼 폴라니. 2011.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2006.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In Phi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1A. Amsterdam·Boston: North Holland.
- Bailey, Thomas C., Winnie Engb, Michael B. Frischc, and C. R. Snyder. 2007. “Hope and Optimism 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68-175.
- Bjørnskov, Christian, Axel Dreher, and Justina A. V. Fischer.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exploring different determinants across groups in society” *Soc Choice Welfare*, 30: 119-173.
- Blekesaune, Morten and Jill Quadagno.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öhnke, Petra. 2008. “Does Society Matter? Life Satisfaction in the Enlarged Europe.” *Soc Indic Res*, 87: 189-210.
- Collins, Randall. 1994. *Four Sociological Tradi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lliwell, John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2): 331-360.
- _____.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March): C34-C45.
- Howard, Marc Morjé and Leah Gilbert. 2008.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the Intern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Voluntary Organizations.” *Political Studies*, 56(1): 12-32.
- Huntington, Samuel.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F. 1990. *Culture Shif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 European Politics*, 31(1-2): 130-146.
- Jeon, Seung-Bong. 2012. “Establishing a Trusting Culture: The Role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Welfare Policy in Cultivating Social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6): 123-151.
- Kalantaler, Karl C. & Stephen J. Ceccoli. 2008. “Explaining Patterns of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Citizen Welfar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5(7): 1041-1068.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i, Shirin M. 2002. *Gend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Cambridge, UK: Polity.
- Rodrik, Dani. 1998. “Globalization, Social Conflict and Economic Growth.” *The World Economy*, 21(2): 143-158.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FRED A. KNOFF, INC.
- Svallfors, Stefan.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19-138.
- _____. 2007. “Class and Attitudes to Market Inequality: A Comparison of Sweden, Brita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Stefan Svallfors (Ed.),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s, Social Cleavages, and Orientation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Wilkinson, Richard and Kate Pickett. 2009.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Bloomsbury Press.

Yee, Jaeyeol and Dukjin Chang. 2011.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153-172.

Does ‘Good Society’ Increase Life Satisfaction?: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pacity in Five Countries

Myungsook Woo

Senior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Gil Young Kim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yong-Hee Ch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Myoungsoon You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integration influence their life satisfaction, using the <Life and Society>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 Germany, Italy, Greece, and Turkey in 2012. This study, expanding the previous studies on life satisfaction, emphasizes the social dimension of factor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We argue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levels of social conflict consisting of economic, relational, and value conflicts.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depends on each level of social conflict. At the same time,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also depends on individual trust in social integration capacity to manage social conflicts.

The overal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inds that affluent, trustful individuals with material and growth-oriented values tend to be satisfied with their lives. Second, if they have positive views on their society’s capacity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individuals tend to be satisfied with their lives. As we expected, som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are found when we compare each country’s results. Income level, experience of economic crisis, trust, value-orientation have different implications in explaining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in each country. Furthermore, individuals’ views on the various dimensions of their society’s capacity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in a different way in each country.

Keywords: Social Conflict, Polarization, Social Integration Capacity, Life Satisfaction, Social Quality

우명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종합연구동 220동 540호
Tel_02-880-8799 E-mail_urijari@hanafos.com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422호
Tel_02-880-2774 E-mail_msyou@snu.ac.kr

김길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410호
Tel_880-2771 E-mail_kravat1@snu.ac.kr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425호
Tel_880-2727 E-mail_chob@snu.ac.kr